

홈페이지 주소 ▶ <http://www.iwate-ia.or.j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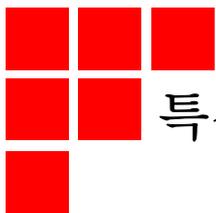
Iwate International Association 2011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2011 이와테 국제교류

가을 Vol.71



특집 ▶ 우리들의 3·11

~이와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01-03 좌담회 「지진 재해와 현거주외국인」
도설 「그 당시 협회에서는」

04-06 연안의 외국인은 지금
임신 7개월 재해 그리고 출산
일본을 응원하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07-08 Close Up

TEX-MEX 요리 SUNDANCE

재모리오카 필리핀공화국 명예영사관

09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실례 연수회 보고

10 평성 22년도 협회 사업 및 재무 상황

우리들의 3·11

~이와테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해일. 다언어 정보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은 「재해 약자」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가족, 친구, 서로 함께 돕고 있는 외국인의 모습에는 「다문화 공생 사회」의 일부가 보입니다. 이와테에 생활하면서 지역과 연대하며 사람들과 인연을 만들어 온 현내에 사는 외국인분들의 지진 재해 체험을 특집으로 합니다.

좌담회

「지진 재해와 현거주외국인」

인터넷, 라디오에서 중국어·영어로 정보 제공, 협회로 오는 국내외 문의에 대응한 외국인분들에게 자신의 체험과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프로필>①출신지 ②일본거주년수 ③직업 ④지진발생 시

—외국인에게 온 문의와 라디오에서 방송한 정보에 대해 알려주세요.

스미스 모국에 돌아가고 싶지만,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서 (수속)준비해주길 바라는 외국인이 있었습니다. 모두 모국에 돌아가서 외로워지고,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정 라디오에서는 당시의 해일, 여진 상황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교통 정보, 라이프 라인의 정보도 방송했습니다. 협회에 걸려온 전화는 가족의 안부 확인으로 중국, 이와테현내에서도 있었습니다.

스미스 피난소에서 필요한 물자의 방송을 라디오에서 해서 다행입니다.

조 빌리고 있었던 책을 반납해야 한다는 전화가 왔지만, 불안하기도 하고 이야기할 상대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좀 더 통화했습니다.

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곳은 많이 있지만, 이와테현 국제교류협회의 홈페이지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대사관의 홈페이지라던지.

—국제교류협회를 모르는 외국인도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과제는?

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와 협력하여, 국제교류협회의 팜플렛을 나눠준다든지, 오리엔테이션에서 이런 곳이 있다고 알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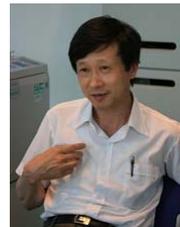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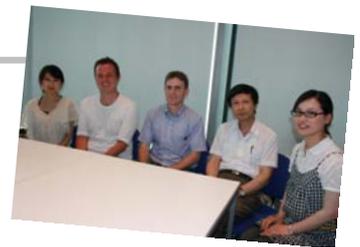
스미스 국제교류협회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홀 다양한 일에 대해 상담을 해줍니다.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 곤란해하고 있는 사람은 협회에 연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네트워크가 없어서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로 시집은 사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정보를 발신하는 것은 어떨까요?

—모국에 자연재해 등의 방재 대책, 피난소는 있습니까?

시 피난소는 없습니다. 대체로 광장에 모입니다.

홀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곳은 집에 지하에 피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뉴올리언즈의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시에는 실내 경기장으로 피난했다고



시시이(席時宜)

- ① 중국·상해
- ② 20년
- ③ 이와테현립코즈카타고등학교 중국어 강사
- ④ 당황하지 않고 집을 둘러본 후 양초, 건전지를 사러 갔다.



제임스 홀(James Hall)

- ① 미국 · 매사추세츠주 · 보스턴
- ② 13년
- ③ 이와테대학 교육학부 준교수
- ④ 아내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고, 자전거를 타고 자녀를 찾으러 다녔다.

합니다. 위험한 곳이라면 피난 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오스트레일리아 남쪽에는 산림 화재가 심해서,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근처에는 스피커로 방송됩니다. 소방서에서 매년 잡지 등을 출판하여 사람들에게 배부합니다.



-이번 지진 재해 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은 있습니까?

조 예전부터 남편에게 계속 이야기해서 구입한 수동식 충전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홀 모리오카 제 3 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이틀간 피난해 있었습니다. 체육관에는 등유, 음식 등을 모두 가지고 와서

공유했기 때문에 곤란하지 않았습니다.

정 저는 현의 관사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제교류원과 함께 있었습니다. 현청에는 자가 발전기가 있어서 자정까지 현청에 있었고, 다음날 라디오로 해일 정보와 지진 정보를 전했습니다.

시 예전에 지진 대처법에 대해서 현의 방재 팸플릿을 중국어로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만들었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난 용품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최소한의 물품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홀 피난소라는 간판을 보고 무슨 이유로 있는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후 피난소가 왜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네트워크가 있고, 서로 도와주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온 지 별로 안된 외국인, 일본어를 잘 모르는 사람, 친구가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지냈을까요?



스미스 지진 재해 전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도 무시당했습니다. 지진 재해 후 쌀을 많이 샀기 때문에 쌀이 필요한지 물어보니까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이후 우유 등을 사면 저에게 가지고 와주었습니다. 지금은 서로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일본어로 말할 수 있는 것을 모르고 긴장하여 인사를 안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일본인 사이에서도 인사를 해주지 않는 일도 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교류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네요. 그 밖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홀 언제 라이프 라인이 복구되는지, 식료품 등의 유통은 언제 원상태로 돌아오는지, 사재기하지 않도록, 패닉 상태가 되지 않도록 텔레비전에서 호소했지만, 일본어를 모르면 그 의도가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스미스 볼란티어를 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지원 물자를 전달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할 때 일본어로 대화해야 해서 일본어를 말할 수 없는 외국인은 방해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도 네트워크도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랐습니다. 모리오카에 사는 외국인이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좌담회를 끝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국적·인종에 관계없이 무엇이 중요한지 좌담회에서 힌트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진 재해 시에 무엇을 생각하고, 실제로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해미쉬 스미스 (Hamish Smith)

- ①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멜버른
- ② 1년 반
- ③ 이와테현립모리오카북고등학교 외국어지도교수
- ④ 가까이 있던 전혀 모르는 할머니와 같이 있었다.



조리나(周麗娜)

- ① 중국·절강성·용유
- ② 4년
- ③ 시와초립초등학교 스쿨 헬퍼
- ④ 처음으로 거대지진을 체험하여 울고 싶었지만, 자녀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였다.



정샤오메이(鄭曉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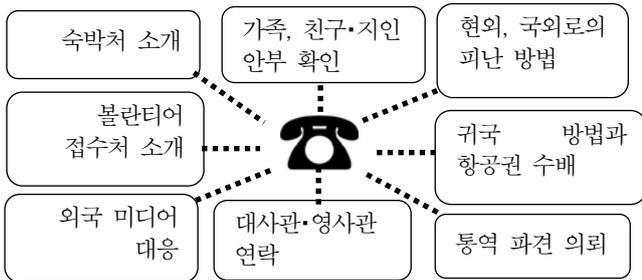
- ① 중국·랴오닝 성·대련
- ② 1년 반
- ③ 이와테현국제교류원
- ④ 지진 발생시는 현청에서 근무. 다음날부터 라디오에 출연하여 중국어로 정보를 제공했다.

도설—그 당시 협회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안부 확인, 이재민 지원의 정보를 조사하거나 문의에 대비하였습니다.

좌담회 참가자 이외에 Cui Huayue, Kameda Kinka, Lu Zhi, Amanda Krips, David Rutella 씨도 라디오 방송이나 통역·번역 등 외국인 대응에 대해 협력해주셨습니다.

전화



「외국인의 귀국 러쉬가 계속되고 있어서 대응해줄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재해 시에 불란티어로 다언어 지원이 가능한 외국인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Cui Huayue)

「일본어를 잘 몰라서 혼자 있는 외국인이 적지 않기 때문에 재해 시에 안부 확인이나 심리적인 상담, 정보 교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협회에 인터넷상의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Lu Zhi)

인터넷

이재민을 위한 지원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에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어서 해외에 있는 사람도 협회의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전화로는 모국어로 정보나 상담을 들을 수 있는 편이 쉽게 안심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에 대응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케어도 필요할지 모릅니다.」(Kameda Kinka)

- 교통정보
- 다언어상담창구
- 공공요금 지불
- 불란티어 정보
- 의료·복지
- 의원금접수창구
- 장학금 정보
-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갱신 수속

라디오

NHK 모리오카 방송국, IBC 이와테 방송, FM 이와테에서는 3 월 30 일까지 영어·중국어의 방송 시간을 확보해주었습니다.

「바다나 강 근처에 가지 않도록 알려주고, 정전이나

- 여진이나 해일 등의 주의보·경보
- 국내를 이동하기 위한 교통 정보
- 여권, 운전면허증, 적금 통장 분실에 관한 접수 방법
- 다언어로 상담할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급수 장소에 대해서도 방송했습니다. 방송 중에도 계속 여진이 왔기 때문에 연안의 사람들이 걱정되었습니다.」(Amanda Krips)

「외국어로 방송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간결하게 전했다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David Rutella)

정보지

이재민의 지원 정보와 상담 창구를 게재하여, 피난소와 연안 지역의 국제교류협회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정보지 jien go 임시호는 일본어·영어·중국어 동시 표기

피재지 순회

공공 교통기관이 재개한 3 월 18 일에 처음으로 피재 지역에 다녀왔습니다.

- 피난소
- 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 (재해불란티어센터)
- 도카이신문사
- 재해 FM 국

- 외국인의 피난상황을 확인
- 외국인에게 상황 청취
- 협회의 외국인 지원 체제 홍보 의뢰
- 대사관 정보를 제공
- 다언어 방송에 대한 조언



옥스팜·제팬 기증의 수동식 충전 라디오를 피재지나 거주 외국인에게 배부 중

연안의 외국인은 지금

연안에 사는 외국인은 지진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으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미야코시에서 모리오카시로 피난 온 킨노 미사키씨, 미야코시에서 재해를 입은 타노하타무라 거주 중의 빅터 코차폼씨, 리쿠젠타카타시에 거주하며 재해 자원봉사를 하는 호소야 마리아 테레사씨 세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신 7개월 재해 그리고 출산



킨노 미사키(金野 美咲)씨

2010년 8월 일본에 음. 미야코시에서 자영업자를 하는 킨노 카나메씨와 결혼. 중국에서 일하면서 2년간 일본어를 공부. 24세, 중국 대련 출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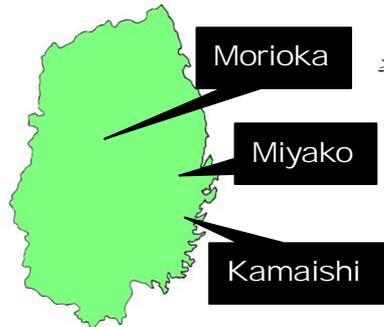
킨노 미사키씨는 6월 7일 피난처인 모리오카 시내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3,030g의 딸을 출산했습니다. 이름은 유리. 남편 카나메씨가 엄마 미사키씨와 같은 다정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작명했습니다.

3월 11일 지진 재해 당일엔 시부모님과 함께 미야코시내의 치과에 있었습니다. 예약이 2시 반이어서 진료대에 앉아 치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치과 병원에서 여진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어 치과 병원 가까이에 있는 합동 청사로 피난했습니다. 남편은 직장 일로 카마이시에 있었습니다. 지진 직후 「빨리 도망쳐」라고 메일을 받았지만, 그 후 연락을 취할 수 없게 되었고 5일 후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해안 근처에 있던 집은 해일로 떠내려가 버렸지만, 가족은 무사했습니다.

중국의 부모님에게는 메일로 연락했지만, 전화가 좀처럼 연결이 되지 않아 10일 정도 걸려 겨우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외동딸로 태평한 성격이니까 미쳐 도망치지 못했을까 걱정했다. 인터넷으로도 찾아보았지만, 연락되지 않아 혹시 죽은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미사키씨는 임신 7개월째 지진 재해를



입었습니다. 당장에라도 중국으로 일시 귀국하고 싶었지만, 몸 상태와 교통 사정을 생각해 일본에

머물었습니다. 피난소를 3번이나 이동한 후, 5월의 연휴가 끝나서야 모리오카 시내의 고용촉진주택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피난 당시에는 하루에 주먹밥이 한 개인 날도 있어 충분한 영양을 보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일 남편은 미사키씨 배안의 아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영양을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이 염려해 주었습니다.

출산은 예정하고 있던 미야코에 있는 병원에서 모리오카의 의원으로 바뀌었지만, 다행히 모자(母子) 수첩을 가지고 있어서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키씨는 「산부인과에서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어 정말로 고맙습니다。」라는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일본에 온 지 일 년으로 임신, 대지진, 출산을 경험한 미사키씨는 초보 엄마로서 분투 중입니다.

미사키씨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문화를 이어갈 유리에게 이와테는 「다정한 고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
·모리오카시 ·미야코시 ·카마이시시

일본을 응원하고 싶어요



빅터 코차퐁
(Victor Kochaphum)씨

태국 출생. 2 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이주. 대학에서 일본어 공부를 시작. 교토에 1 년간 교환유학 경험이 있다. 현재 타노하타무라 외국어 지도 조수. 29 세.

3월 11일

「그날은 귀국 예정인 미야코시에 사는 친구와 미야코시내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계산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빅터씨는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진도 7 약의 지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지상파 방송에서는 확실히 대해일 경보라는 화면이 나오고 있었다. 친구는 해안에 있는 아파트로 피난하고 싶어 했지만, 저는 높은 지대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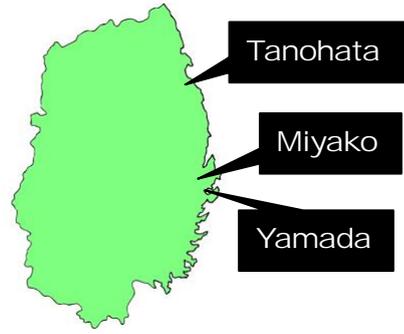
높은 지대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으로 피난하여 미야코가 해일에 휩쓸리는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배터리가 다되어서 방파제를 넘어오는 것은 몰랐다. 믿어지지 않았다.」. 도로가 통행금지되어 타노하타로에는 돌아갈 수 없어서 나미비아인과 결혼한 일본 친구 가족의 집에 영국, 필리핀, 호주 친구들과 닷새동안 피난해 있었습니다.



▲이 방에 외국인 5명과 친구 가족 4명이 함께 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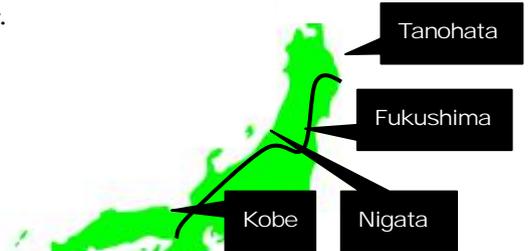
원전 사고의 불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귀국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저는 미야코 지역과 정이 깊이 들어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어려울 때일수록 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3년간 여러 활동을 통해서 많은 친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전달돼 부모님에게 귀국하라는 말을 들었다. 일본의 상황을 알려주고 안심해도 된다고 설득했다.」.



고베로

3주 후, 관서지방의 친구를 통해 귀국하는 외국어 지도 조수의 생활용품 등이 고베시 교육위원회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4월 15일 경승용차로 16시간을 달려서 고베로 이동했습니다. 「이와테는 편의점 같은 곳에 상품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니가타에 들어서니 평소처럼 상품이 가득 있어서 놀랐다. 왜 고베까지 가게 되었나요? 「친구에게 저는 무사하다고 전하고 싶었다. 동북지방 이외의 지역은 괜찮은지 알고 싶었다.」. 뉴스에서 지원물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듣고 가지러 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위의 모든 사람은 방재 가방을 준비해 두고 있다. 모두 아직 지금 상황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안함은 남아 있다.」. 일본어가 상당히 능숙한 빅터씨이지만, 정신적인 일이나 깊은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낀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학생들도 가족을 잃었다. 겉모습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마음속에 불안과 슬픔이...」.

7월 말부터 일시 귀국,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어머니와 포옹. 4 일째까지 연락되지 않아 걱정되어 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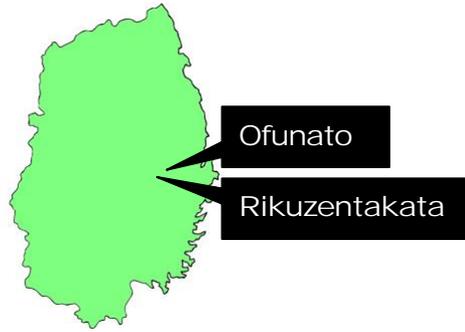
▲물자를 가득 싣고 아마다쵸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호소야 마리아 테레사씨

리쿠젠타카타시로 시집 온 첫 필리핀인 여성. 45 세. 고등학교 2 학년의 아들, 중학교 3 학년과 초등학교 3 학년의 딸이 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케센 사투리(気仙弁/리쿠젠타카타지역의 방언)가 나옵니다.



클럽활동을 그만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2명 가족의 어머니

「니시메(일본식 조림)도 만들어요. 차왕무시(일본식 계란찜)에 양념밥, 채소절임도」라고 밝게 이야기하는 마리아 테레사씨. 「앞으로는 외국인도 늘어날거야」라고 17년 전에 마리아 테레사씨가 리쿠젠타카타시에 온 것을 계기로 시에서 일본어 교실을 개설. 당시에는 외국인 친구가 없었는데 이웃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힘내요」라고 언제나 말을 걸어 주었습니다. 요리는 시어머니에게 배웠다고 합니다.

7인 가족 외에 지진 재해 후에는 시어머니의 친구로 재해를 입은 가족 5 명도 받아들여 매일 12 인분의 식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과 함께 생활하니까 여러 가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자원봉사

「일본에 왔을 때는 주위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이번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여 재해를 입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지진 재해 후 바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로원과 피난소 순회, 물자 분류에 쓰레기 처리. 「할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15 시까지 활동할 수 있어요.」

지진이 일어난 날은 높은 지대에 있는 자택에서 해일이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멀리 하얀 거품이 떠올랐고, 그 거품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크고 검은 벽같이 변해서 정말 무서웠다.」 친구의 집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회사도 떠나려했습니다. 다행히 건설회사에 근무하는 남편과 3 명의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아들은 지진 재해 후에



▲피해가 컸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여름방학의 수영장 당번은 재해 자원봉사자가

일본에서 노력하고 싶다.

남편 회사도 피해를 입었고 마리아 테레사씨도 직장을 잃어 아이들의 학비 등 생활 불안이 심해졌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마리아 테레사씨는 취직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조리사 면허를 따고 싶다」라고 합니다. 또한, 재해를 입은 필리핀 친구를 걱정하여 「필리핀에 일시 귀국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곳에서 모두와 함께 노력하고 싶습니다.」



▲5월 13일에 리쿠젠타카타시, 오후나토시에 사는 필리핀 출신자가 오랜만에 모였습니다.

TEX-MEX 요리 SUNDANCE

어떤 때라도, 모두의 「안식처」

외국인 단골손님이 많은 모리오카시 오오도오리의 「선 댄스」. 지진 직후의 혼란 속에 많은 외국인이 이곳으로 모여들어 정보 교환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모두의 「집합 장소」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술이 진열되어 있는 점내

모리오카시 오오도오리에 있는 「선 댄스」의 오너 미즈모토 히로시씨는 「자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히 생각해 줄까? 이번 지진 재해로 깨달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비상시에 여러분이 이 가게를 믿고 의지해 주어서 매우 기쁩니다.」라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유럽의 선술집 같은 분위기를 가진 이 가게는 외국인에게 사고 장소적인 존재입니다. 부담 없이 와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인맥이 넓어집니다. 이런 「집합 장소」를 믿고 의지해 지진 재해 후에도 많은 거주 외국인들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전기가 복구되어 가게에 불을 켜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 단골손님들이 차츰 모여들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러 온 것보다 정보를 얻고 싶거나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서 왔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미즈모토씨는 「이런 시기에 가게를 연다는 것은 선부른 행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가게에 오는 외국인들의 불안해하는 모습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있을 곳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 영업 재개를 결의. 차츰 일본인과 해외에서의 자원봉사자도 모이게 되어 정보교환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편, 매일 심각해지는 지진 재해와 원전 사고로 모국에 돌아간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미즈모토씨는 신칸센이 복구되지 않아 아키타 공항을 거쳐 귀국하는 사람들을 위해 승합 택시를 준비하는 등의 서포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신뢰 관계가 있었기 때문. 「한 사람이라도, 한 잔이라도 부담 없이 들릴 수 있고 항상 곁에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경영해온 『선 댄스』는 어느덧 모리오카에 사는 외국인들의 기댈 수 있는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모리오카에 이런 가게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세계의 어떤 술집보다도 선 댄스가 좋다고 말할 수 있게 노력하고 싶다.」 이런 미즈모토씨의 바람은 이 가게에 모이는 외국인들에게 확실히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여기에 사는 분도, 지금은 멀리 있는 분도 「언제 와도 변함없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집 같은 장소이고 싶다」 라고 말하는 미즈모토씨



▲가게 입구

TEX-MEX 요리 SUNDANCE
020-0022 盛岡市大通 2-4-22
TEL 019-652-6526

재모리오카 필리핀공화국 명예영사관

연결의 다리가 되어

모리오카시에 사무소가 있는 동북지방 유일의 필리핀공화국 명예영사관이 올해 6 월에 문을 닫았습니다. 2006 년 1 월부터 5 년 반 동안의 일과 국제교류 등에 관해서 명예영사인 무라야마 마사히로씨, 비서인 로즈 아기다 오이존 아페로씨에게 물었습니다.

동북지방 6 현에 사는 필리핀 사람들을 위해 결혼, 출생에 관한 각종 증명서의 번역, 발행 접수와 인증, 여권 갱신 등의 영사 사무를 중심으로 양국 간의 국제교류, 필리핀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힘써 왔습니다.

이와테현내에는 약 900 명의 필리핀인이 살고 있습니다.

농업과 어업을 하는 집으로 시집와서 아이들을 낳고 각

지역의 주민으로서 사는 여성도 적지 않습니다. 결혼과 출산, 귀국 등으로 증명서가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청하기 위해 동경에 있는 대사관까지 가야만 했지만, 모리오카에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특히 북동북지방에 사는 사람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경비 면으로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동일본 대지진 재해로 가재도구와 함께 여권 등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아서 지진 재해 후, 영사관은 연일 문의와 상담이 끊이지 않았습니



▲필리핀의 과자로 대접

다지진 재해 이후가 가장 바빴는데, 여권을 해일로 잃어버렸지만, 안부를 알리기 위해 일시 귀국하고 싶다는 내용의 상담이 늘어났습니다. 5년 반 동안 만난 필리핀인의 주소와 사진 등을 컴퓨터에 저장해 둔 덕분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을 대신해 1 회만 이용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발행해 줄 수 있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라고 마지막 업무를 뒤돌아봤습니다.

영사관에서는 매년 6 월 필리핀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리오카시내에서 파티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노래와 춤, 요리로 국제교류 촉진에 한몫을 맡고 있으며 현내 거주 필리핀인의 유대를 강화하는 기회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무라야마씨는 「평소에는 각자 가정과 직장이 있어서 좀처럼 필리핀 사람들끼리 모이는 기회가 없습니다. 모국어로 서로 이야기하고 남편들끼리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파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양국 간 일반 대중의 국제교류가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모두가 기대하는 필리핀 독립기념 파티

▲Rose Agueda Oyzon
Apelo(로즈 아페로)씨 아기다 오이존

필리핀대학 졸업 후, 재필리핀 일본대사관 인턴을 거쳐 명예영사 비서로서 도일. 「교환유학으로 관서지방에 거주한 적도 있습니다. 20 대 후반을 모리오카에서 지냈습니다. 음식도 입에 맞고 이와테 사람들이 좋습니다。」



▲무라야마 마사히로 (村山 正弘)씨

주식회사 GINGA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사장. 친한 사이인 오후레 전 외무장관의 의뢰를 받아 명예영사에. 무보수이기 때문에 사비로 영사관을 운영해 왔다. 지진 재해로 인해 받을 본업의 영향과 필리핀 대사관의 뜻에 따라 부득이하게 폐관.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몹시 안타깝다」

동일본 대지진 피해지 실례 연수회 보고

2011년 5월 26일에 열린 이와테현국제교류관계단체 연합회의 연수회에서 피해지의 국제교류단체와 일본어 교실의 분들에게 피해 상황이나 부흥 지원의 모습을 보고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외국인과 국제교류의 현 상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고자: 오션즈 미야코 국제교류 동호회
대표 사사키 마사토 (佐々木匡人) 씨**

4월 14일부터 일본어교실을 재개했습니다. 미야코 방언 카드놀이를 즐겼지만, 지진 재해 이후 밤길을 혼자서 걸을 수 없게 되어 교실을 쉬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일본인에게 도움을 받았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집과 함께 해일에 떠내려가 돌아가신 외국인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정보 내용을 들을 수 없었는지, 피난 장소를 몰랐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부흥 지원으로 오는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그곳은 분위기가 온화해집니다. 골레가 없는 「외국인」 이야말로 가능한 치유의 효과일지도 모릅니다.



**보고자: 카마이시시국제교류협회
사무국장 카토 나오코 (加藤直子) 씨**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항구 도시의 환경을 가진 카마이시시. 해일로 긴급 상륙한 필리핀인 선원은 타갈로그어로 의사 소통이 안되었는데도 주위의 일본인이 도와 주워서 주먹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인과 결혼하여 일본 이름으로 바뀐 외국인도 있어서, 명부만으로는 어디에 피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일본인이야」라고 지역에 스며들어 친숙해져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외국인도 일본인도 모두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제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시의 재해대책본부에서 이전에 외국어도 조수를 했던 제플리와 조지아를 만났습니다. 왜 여기에 있는 지 물으니 카나가와현에서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볼란티어 활동을 했습니다. 인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자 : 전 리쿠젠다카타시 국제교류협회
일본어 교실강사 오오와다 카요코 (大和田加代子) 씨**

리쿠젠다카타시의 일본어 교실에는 국제결혼으로 일본에 온 외국인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피난소에서 마음 없는 말이 가슴을 아프게 한다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일을 잃은 사람, 아이를 잃은 사람, 친척의 시신을 보고 불면증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녀들의 생활은 지역에 깊게 자리잡혀 있어서 귀국하지 않고 이곳에 있습니다.

해일로 인해 없어진 집을 마스크에서는 쓰레기라고 하고 있지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자체, 생활해왔던 증표입니다.

우연히 만난 외국인의 제안으로 4월 23일에 불고기 파티를 했습니다. 피난소나 지원물자보관장소가 아닌 시설을 찾는 것은 꽤 힘들었습니다. 당일은 한 사람씩 맞이하기 위해 피난소를 돌았습니다. 근처의 외국인을 염려하여 걱정하고 있는 일본인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은 현재 「피해지 외국인 상담원」으로서 협회와 제휴하며, 거주 외국인의 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등에 협력해주시고 계십니다.

협회 보고

■평성 22 년도 사업 보고

당협회는 새로운 공익법인제도 아래에서 공익 재단법인으로의 이행 준비를 진행하면서,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도 기부자와 찬조회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동시에, 경비 절감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관계 기관·단체, 써포터 등 여러분과의 제휴·협동으로 당협회의 활동 기본 방침인 「국제 이해 추진과 차세대를 담당하는 지구 시민 육성」, 「지역 레벨의 국제화 추진과 환경 만들기」 및 「외국인의 자립 지원과 공생의 촉진」을 근거로 한 국제 교류·국제 협력·다문화 공생의 각종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국제 교류 관계 단체와 거주 외국인,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협동으로 실시한 「윈 월드 축제 in 이와테」에는 여러분의 많은 참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평성 22 년도부터 개설한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는 참가자 여러분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욱이 외국인의 다양한 상담에 응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어 써포터와 다언어 써포터의 육성·등록, 활용을 진행하면서 다문화 공생 사회의 형성을 위해 의욕적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나 평성 23 년 3 월 11 일에 동일본 대지진의 발생으로 인해 당협회에서도 가능한 이재민 지원 활동을 실시하였으나, 한편으로 당초 예정하고 있었던 일부 사업은 중지나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평성 22 년도 기부금·찬조회원의 접수와 용도

평성 22 년도에 당협회가 받아 들인 기부금과 찬조회비의 총액과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1 총액 1,408,000 엔
 - 기부금 4 건 92,000 엔 (기본재산 기부금 3 건 90,000 엔, 일반 기부금 1 건 2,000 엔)
 - 찬조 회비 1,316,000 엔 (473 명, 68 단체)
- 2 용도
 - (1) 기본재산으로 편입 90,000 엔
(기부금 지정 용도에 따라 당협회의 기본재산에 편입시켜 앞으로의 사업 활동에 활용되어 집니다.)
 - (2) 평성 22 년도 공익목적사업에 활용 1,318,000 엔
(정보지 「jien go」 발행, 외국인 상담 실시, 이와테 글로컬 컬리지 개최, 윈 월드 축제 개최, 외국인과의 교류회 「챗도란도」의 개최, 국제 교류 단체 등의 활동 사업 조성 등 평성 22 년도에 실시한 공익목적사업의 경비 일부에 활용되었습니다.)

■평성 22 년도 순재산 증감 계산서

(평성 22년 4월 1일부터 평성 23년 3월 31일까지) (단위 : 천엔)

과 목	당년도	전년도	증 감
I 일반순재산 증감 부분			
1 경상 증감 부분			
(1) 경상 수익	63,818	87,519	△23,701
기본재산 운용이익	14,579	20,820	△6,240
특정자산 운용이익	887	1,940	△1,053
수령 회비	1,316	1,250	66
사업 수익	20,230	25,673	△5,443
수령 보조금 등	26,404	30,800	△4,395
수령 부담금	150	169	△19
수령 기부금	2	40	△38
접수익	247	83	163
투자유가증권평가이익	0	6,740	△6,740
(2) 경상 비용	68,941	78,024	△9,083
사업비	36,367	48,936	△12,569
관리비	32,574	29,088	3,486
당기 경상 증감액	△5,123	9,494	△14,617
2 경상의 증감 부분			
(1) 경상의 수익	54,585	0	54,585
투자유가증권매각이익	54,585	0	54,585
(2) 경상의 비용	2,009	0	2,009
투자유가증권매각손실	2,009	0	2,009
당기 경상의 증감액	52,575	0	52,575
당기 일반순재산 증감액	47,452	9,494	37,958
일반순재산 기초잔고	44,294	34,800	9,494
일반순재산 기말잔고	91,747	44,294	47,452
II 지정순재산 증감 부분			
수령 기부금	90	150	△60
기본재산 운용수익	70,342	20,820	49,521
기본재산 평가손실	51,047	17,460	33,587
일반순재산으로의 대체액	△69,164	△20,820	△48,344
당기 지정순재산 증감액	△49,780	△17,310	△32,470
지정순재산 기초잔고	1,027,421	1,044,731	△17,310
지정순재산 기말잔고	977,641	1,027,421	△49,780
III 순재산 기말잔고	1,069,389	1,071,716	△2,327

여러분도 찬조회원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취지에 찬동하며, 사업을 지지해주실 찬조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찬조 회비는 현대의 국제교류·국제협력·다문화공생의 공익 목적 사업에 도움이 됩니다.

회원 특전

- ① 협회 발행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정보지「Jien go」
※학생 회원은 Email 매거진으로 정보 제공합니다.
협회기관지「이와테 국제교류」
- ② 협회 주최 행사 등의 안내를 보다 빨리 안내해 드립니다.
- ③ 협회 주최의 이벤트나 세미나의 참가비가 우대 할인됩니다.
- ④ 「에스닉 레스토랑 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⑤ 「여행우대맵」을 발송합니다. 제휴하고 있는 점포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⑥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회비

- ① 개인회원...각 3,000 엔
 - ② 단체회원...각 10,000 엔
 - ③ 학생회원...각 1,000 엔
- 협회의 소정 납부 용지로 지정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담 없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협회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표지 사진/모리오카 산사오도리「세계는 친구」탐

8 월 2 일 거주 외국인분들, 지진 재해 이재민분들 포함한 리쿠젠다카타, 미야코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총 100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편집후기

- 빅터씨는 일본에 영주할 정도로 일본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좋은 청년이었습니다.(히)
- 바쁜 나날 속에서도 2 시간을 넘긴 인터뷰. 전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놀랐지만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모리)
- 만난 사람에게 두근두근, 대화에 두근두근. 눈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도 느낄 수 없는 보물 발견!(non)
- 몇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피재지의 부흥. 그러나 겨우 몇달로「그날」을 멀리 느끼고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내고, 글로 써야겠습니다.(S)
- 그날로부터 반년.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결실의 가을. 제일 좋아하는 콩치의 계절. 올해도 산리쿠산 콩치를 많이 먹읍시다. 무리하지 않고, 매일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하오)
- 지진 재해와 거주 외국인을 현재 진행형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본년도는 5 년 만에 2 회 기관지를 발행합니다. 다음 회는 내년 3 월,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외국인을 특집으로 할 예정입니다.(미)

기부의 부탁

협회는 현민 분들이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국제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또는 현재 거주 외국인분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교류·국제협력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활약을 보다 충실히 진행시키는 것과 함께, 민간의 입장에서 국제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이나 활성화에 기부했습니다. 협회의 활동을 장기적, 지속적,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협회의 재정 기반의 충실에 대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협회에 기부하신 분은 세법상의 손금 산입이나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니우에어 연구에 오랜 세월동안 노력하고 계신 엔도 마스미씨가 직접 번역·편집한 「니우에어 사전」을 기증해주셨습니다.

에스닉 레스토랑맵 제휴점 「EAST ASIA」 (大船渡市盛町字内ノ目 12-4)



양케이트 선물「사오리오리 리스트밴드」를 소개받았습니다. 「해일로 가게 안은 통나무나 드럼캔, 침전물이 들어와서 어느것이 상품이고 어느것이 흘러들어온 것인지 선별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손님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5 월 중순에 음식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점장 쿠마가이 에이미씨)

■ 국제교류센터 (아이나 이와테현민 정보교류센터 5F)

■ 개관일 매일 ■ 개관시간 9:00~21:30 ■ 휴관일 연말연시

편집 이와테국제교류편집위원회
편집장 나카무라 미카코
편집위원 오타카 히사에, 오모리 후지오,
사와다테 노부코, 스즈키 이즈미,
무라이 요시코

어드바이저 다카하시 코우쇼
발행 공익재단법인 이와테현국제교류협회
〒20-0045 모리오카시 모리오카에키
니시도오리 1-7-1
TEL.019-654-8900 FAX.019-654-8922
인쇄 야마구치호쿠슈인쇄주식회사
〒20-0184 모리오카시 아오야마 4-10-5
TEL.019-641-0585 FAX.019-648-1026